

제주 4·3 70주년

네트워크프로젝트

잠들지 않는 남도

제주를 넘어, 4·3 영화특별전

Beyond JEJU 4.3 Cinema Special

2018.
4.6.Fri -4.8.Sun

아리랑시네센터
3관

Section

오명감독의 제주,
끝나지 않은 역사

끝나지 않은 세월
이어도
지술: 끝나지 않은 세월2
눈꺼풀


다큐,
기록과 기억 사이

레드헌트
레드헌트 2: 국가범죄
비념


장르,
비극적 역사의 재구성


이재수의 난
퇴마:무녀굴

주최

 제주4·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

공동주관

 제주4·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

 성북문화재단
SEONGBUK CULTURAL FOUNDATION

후원

 행정안전부
Ministry of
the Interior and Safety

협력

역사문제연구소

문의

02)3291-5540

www.arirang.go.kr



아리랑시네센터 검색

무료상영

기획 의도

70년 전, 광복의 기쁨과 희망에 부풀었던 수만 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비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. 제주를 넘어,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근현대사의 아픔을 우리는 영화적 언어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.

진정한 자주독립과 더 나은 세상을 염원했던 4·3사건은 제주 사람들의 울분의 저항이었습니다. 그러나 불과 수년 전만해도 제주도 간첩들의 무장봉기 사건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. 1997년 조성봉 감독의 <레드헌트>가 인권영화제에서 개봉되었을 때 당국의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음이 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살아남은 자의 생생한 육성을 담아 진실을 알린 다큐 <레드헌트2:국가범죄>을 통해, 민간인 학살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를 가슴 먹먹하게 그려낸 <지슬>을 통해, 정물과 흔적을 중심으로 절제된 아픔을 담아낸 다큐 <비념>을 통해, 그밖에 4·3의 정신을 담은 영화를 통해 우리는堂堂하게 역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.

<제주를 넘어, 4·3 영화특별전>은 『오명 감독의 제주, 끝나지 않은 역사』, 『다큐, 기록과 기억 사이』, 『장르, 비극적 역사의 재구성』 등 총 3개의 섹션, 9편의 작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
이번 영화특별전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아픔을 마주해보길 바랍니다. 또한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평화와 상생, 인권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.

관객과의 대화 | 영화 상영 후 GV

<비념>GV | 임흥순 감독, 송효정 영화평론가

<레드헌트2:국가범죄>GV | 조성봉 감독, 배경식 역사학자

<퇴마:무녀굴>GV | 김휘 감독, 이종승 영화평론가

시네토크

제주 4.3과 영화적 재현 | 오명 감독, 박준성 역사학자, 강성률 영화평론가

Program

4.6 Fri	11:00	섹션1. 끝나지 않은 세월	⑫
	13:30	섹션2. 지슬: 끝나지 않은 세월2	⑮
	16:00	섹션3. 이재수의 난	⑫
	19:30	섹션2. 비념(GV)	⑮
4.7 Sat	11:00	섹션2. 레드헌트	⑫
	13:30	섹션2. 레드헌트2:국가범죄(GV)	⑮
	16:00	섹션2. 비념	⑮
	19:30	섹션3. 퇴마:무녀굴(GV)	⑮
4.8 Sun	11:00	섹션1. 이어도	⑫
	14:30	섹션1. 눈꺼풀	⑮
	16:00	시네토크 - 제주 4.3과 영화적 재현	Ⓐ
	19:30	섹션2. 지슬: 끝나지 않은 세월2	⑮